

경제

<롯데마트 월드컵점>

<홈플러스 동광주점>

1800원 500ml 맥주 1260원에 판매...42% 차이

■ 광주지역 대형마트 3곳·SSM 1곳 20개 생필품 가격 비교해보니

같은 제품 유통구조 단순한 온라인몰이 더 싸기도

엔진오일 일반 정비소보다 48%까지 비싸 폭리 논란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맥주가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될 때는 가격이 왜 제각각일까. 또 유통구조가 단순해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해야 할 온라인몰이 더 비싼 이유는 뭘까. 광주일보가 지난 19일 광주지역의 대표적 대형마트 매장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곳에서 광주시가 매주 발표하는 물가동향 주요 생필품 46개 품목 가운데 20개를 선정해 판매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협상 따라 가격 차=제조사가 같은 공산품이라도 대형마트 간 가격은 제각각이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오비 골드라거 맥주(500ml)의 경우 롯데마트 월드컵점에서는 1800원에 팔렸지만, 이마트 광주점에서는 1790원,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는 1260원에 팔렸다. 오후기 참기름(320ml)도 롯데마트·홈플러스·롯데슈퍼에서는 66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마트에서는 5270원에 거래됐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제품 매입 물량에 따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가격 협상이 진행돼 가격 차가 발생

한다"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고객이 많은 매장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몰이 더 비싸 때>=같은 상품일지라도 대형마트 매장보다 해당 온라인몰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었다. 롯데슈퍼 풍암점에서 5790원에 팔리고 있는 맥심 모카골드 커피(병·100g)가 롯데슈퍼몰(www.lottesuper.co.kr)에서는 6190원에 판매돼 7%(400원) 가량 더 비쌌다. 백설정 백당(3kg)도 롯데슈퍼 풍암점에서는 5130원에 팔렸지만 온라인몰에서는 3%(160원) 비싼 5290원에 팔리고 있었다. 롯데슈퍼 본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할 경우 소비자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물건을 배송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기 전이라면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부풀려질 수도=매장에 고지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사례도 발견됐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 판매중인 '풀무원 국산콩두부(부드러운 부침용)'가 매장 내 고지된 가격은 3300원이었지만 영수증에는 '단단한부침 두부'로 3630원이 찍혀있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동광주점 관계자는 "매장 내에 해당 제품이 다른 코너에 잘못 놓여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사전에 가격을 스캔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구입한 제품과 영수증에 찍힌 제품이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4만3000여 종류다. 수시로 실시하는 기획행사로 가격 변동이 커 상품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물게 실수가 발생할 때도 있다는 유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계산착오 등 실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5000원권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환불·교환해 주고 있다. <오일 등 일부 품목은 '폭리' 논란=주요 생필품이 아닌 일부 제품의 경우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몇배는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 '폭리 논란'도 우려됐다.

■ 마트별 공산품 가격 비교(지난 19일 기준)

Table with 4 columns: 품목, 롯데마트 월드컵점, 이마트 광주점, 홈플러스 동광주점, 롯데슈퍼 풍암점. Lists various goods like rice, instant noodles, soybean paste, etc. with prices.

'모빌 3000'엔진오일 제품의 경우 롯데마트 월드컵점에서 1통에 1990원에 팔리고 있었지만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한 통 당 1만~1만34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적게는 48.5% 많게는 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월드컵 관계자는 "3만 가지 이상 제품을 취급하고,

각 유통업체마다 세일, 특가 등으로 인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손실보전은 어려운 형편이다"며 "하지만 세일이나 특가상품이 아닌 정상상품의 경우 가격 차이가 많을 경우 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모빌 3000' 제품은 매장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날씨 쌀쌀해지니 韓茶 인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자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한차 매장서 고객들이 감미료와 연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도라지차를 사용하고 있다. 차 매장에서는 국화차, 민들레차, 썬차, 감잎차, 허브차, 유기농 캐모마일, 로즈마리 등 다양한 차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아차 광주노조 前노조에 수억 환수 소송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회계 규정에 맞지 않게 수억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전임 노조 집행부에 대해 법적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수억 원을 집행한 19대, 21대 노조 집행부 67명에 대해 금액 환수를 위한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소송'을 광주 지방법원에 냈다. 회수 금액은 19대 3억3600만원, 21대 1억4900만원 등 총 4억8500만원이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관련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9월 말까지 환수조치에 응할 것을 통보했지만, 19대와 21대 집행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대 집행부 관련자들은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면서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끊어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의지에서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 관련자들이 환수에 응하면 곧바로 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41.59 (-2.25), 코스닥지수 523.00 (+4.19), 금리(국고채 3년) 2.84% (+0.03), 원·달러 환율 1,104.20원 (+0.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직장인 10명중 4명 "창업 경험" 997명 설문...30% "실패" 10% "성공"

직장인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대 이상의 남녀 직장인 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경험과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1%인 400명이 '창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9.8%인 297명이 '창업에 실패했다'고 답했으며, '창업에 성공했다(현재 사업운영)'는 답변은 10.3%인 103명에 그쳤다. 창업 경험은 20대가 22.2%, 30대가 47.5%, 40대 이상이 48.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하지만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30대가 12.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9.0%)과 20대(6.4%)는 낮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2.1%인 519명이 '향후 창업할 계획'이라고 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창업 실패 경험자의 42.8%인 127명이 다시 창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자발적으로 출점 제한

월2회 자율 휴무도...전통시장 등과 합의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이날 전국 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들은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강제 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자율 휴무 이행, 중소기업 지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중소 유통업체측에서는 재래시장 대표격인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과 한국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이 참석했다. 대형마트측에서는 한국 체인스토

어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환 홈플러스 회장, 이마트 최병렬 사장,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 홈플러스 왕희석 사장, GS리테일 홍재무 대표, 롯데슈퍼 소진세 대표이사,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재일 대표가 나왔다. 이날 회의를 중재한 지경부측에서는 홍석우 장관과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이 배석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기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he text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and 'www.segistar.co.kr'.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ISO, CE, GMP)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